**주님께 헌신된 평화의 사람들**

**마태복음 25장 31,34-40절**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4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5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40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지금 내가 취한 하나의 행동이 후에 어떤 결과를 빚을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면 내가 과거에 했던 하나 하나의 행동이 저토록 중요한 것이었나 정말 깜짝 놀라게 될 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앞에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과 주님은 그분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그것은 주님께 그렇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그네 된 사람을 보고 영접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헐벗은 사람을 보고 옷을 입혀준다면, 그것은 주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병든 사람이나 옥에 갇힌 사람을 보고 찾아가 돌봐준다면, 그것은 주님께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 하나 하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복 받을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33:30)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기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섬기는 복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2차대전 발발 직후인 1940년 여름, 이십 대 중반의 스위스 청년 로제는 슬픔으로 가득한 현실에서 화해의 삶을 실천하고자 새로운 출발을 감행합니다.

프랑스 동부 브루고뉴 지방의 작은 마을 떼제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그는 전쟁을 피해 나오는 난민들을 자신의 공동체에 비밀리에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전후에는 근처 수용소에 있던 독일포로들을 주일마다 초청하여 대접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며,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을 민족과 이념과 종교를 초월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949년에 일곱 명의 형제들이 종신수도서약을 하고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다양한 지역과 민족과 배경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떼제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떤 사람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머물 곳이 없고 또한 갇혀 있게 되는 상황은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없으므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처럼 먹지 못하는 사람을 먹이고 입지 못하는 사람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갇힌 사람을 돌보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자선을 베푸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종과 민족과 이념과 종교 등의 차이를 강조하며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드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직 사람 하나 하나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만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 분리의 장벽들을 허물고 그곳에 평화의 공동체를 창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예수님은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섬김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헌신할 당신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벌써 60여년간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 있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평화를 위한 부르심은 결코 나와 무관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분단의 현실로 인해 여전히 아픔과 상처, 미움과 분쟁, 결핍과 고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멀리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프라하 꼬빌리시에서 체코 현지의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도 이 평화를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보다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여기서 함께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갈 때, 그것이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사랑의 섬김을 수반합니다.

이 평화의 사역을 위해 그 동안 소리 없이 사랑의 섬김을 감당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2015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대하듯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셨고, 우리를 당신 안으로 초대하셨으며, 우리를 찾아와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각자 보냄 받은 자리에서 이웃을 편견 없이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 확장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